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요단강을 만납니다. 요단강은 우기에는 평균 깊이가 4~5m가 되고, 강둑에 넘쳐 폭이 1.6 km까지 늘어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선 때가 물이 넘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15절)

가장 물이 많은 시기에 요단강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그곳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5절) 그리고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6절)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10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요단이라는 장애물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앞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세 가지 명령을 함께 묵상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귀한 시간되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3-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관리들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아갑니다. 백성들은 이천 규빗 떨어져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이천 규빗은 1킬로미터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천 규빗을 떨어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 그리고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하나님의 따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것,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따라 걸어야 하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를 만나거든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합니다. 요단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결을 위해 세 가지 정도의 일을 했습니다. 여자를 멀리하고, 몸을 씻고 의복을 세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장애물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장애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라.

13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요단 물을 밟고 서면, 요단물이 끊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14~17절에는 제사장들이 흐르는 요단강을 향해 걸어 들어갔을 때, 물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강 건넌 것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것을 보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걸어 들어갔을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우리 발을 물에 들여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먼저 내딛어야 하는 결단과 순종이 걸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요단을 밟듯, 걸음을 내딛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21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16(월)	1/17(화)	1/18(수)	1/19(목)	1/20(금)	1/21(토)	1/22(주일)
창35-37	창38-40	창41-42	창43-44	창45-47	창48-50	출1-3

QT

이번 주 QT 말씀

1/16(월)	1/17(화)	1/18(수)	1/19(목)	1/20(금)	1/21(토)	1/22(주일)
빌3:1-9	빌3:10-21	빌4:1-7	빌4:8-13	빌4:14-23	삼상1:1-8	삼상1:9-18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렵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나누어 주세요.
3. 내 삶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세가지 사항을 통해 나누어 주세요.